(재)대한성서공회

「성경원문연구」 58 (2026. 4.), 157-185
ISSN 1226-5926 (print), ISSN 2586-2480 (online)
DOI: https://doi.org/10.28977/jbtr.2026.4.58.157
https://dbpiaone.com/bskorea/index.do

JBTR
JOURNAL OF BIBLICAL TEXT RESEARCH

누가복음 5:10의 ζωγρέω 번역 재고
— 포획의 은유에서 생명의 방향으로 —

안호준*

1. 들어가는 말

누가복음 5:1-11은 어부들이 예수께 부름받는 장면을 전하며, 흔히 '사람을 낚는 어부'라는 은유[1]적 표현을 중심으로 요약되곤 한다. 특히 대부분의 한글 번역본이 5:10하반을 "이제부터 너는 사람을 낚을 것이다"라고 번역한 것이 널리 통용되면서, 그 표현이 지닌 언어적 의미[2]는 별다른 의미론

* McMaster Divinity College에서 신약학으로 박사학위를 받음. 현재 한국침례신학대학교 신학과 조교수. ahnh@kbtus.ac.kr.

1) 본고에서 말하는 '은유(은유적 표현)'는 단순한 수사적 장식이 아니라, 한 경험 영역(초점)이 다른 경험 영역(틀)의 관점에서 이해되도록 하는 의미 생성의 장치를 가리킨다. 이러한 의미는 단어 자체에 고정되기보다 담화적 문맥과 사회·문화적 전이해 속에서 형성되고 조정된다. 이와 같은 은유에 대한 이해와 관련하여 다음의 연구들을 참고하라: L. D. Ritchie, *Metaphor*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13); G. Lakoff and M. Johnson, *Metaphors We Live By*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Press, 1980); M. Black, *Models and Metaphors: Studies in Language and Philosophy* (Ithaca: Cornell University Press, 2019); P. Ricoeur, *The Rule of Metaphor: Multi-disciplinary Studies of the Creation of Meaning in Language*, R. Czerny, et al., trans. (Toronto: University of Toronto Press, 1975); Z. Kövecses, *Metaphor: A Practical Introduction*, 2nd ed.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2010); R. W. Gibbs Jr., *The Poetics of Mind: Figurative Thought, Language, and Understanding*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94); J. M. Soskice, *Metaphor and Religious Language* (Oxford: Clarendon, 1985).

2) 여기서 '언어적 의미'란 특정 어휘가 지닌 의미 가능성이 문맥 속에서 활성화되는 방식을 가리키며, 본고는 한 단어가 서로 독립적인 여러 의미를 지닌다고 보기보다 하나의 의미 핵(semantic core)이 다양한 맥락 속에서 확장된다고 이해하는 의미론적 입장에 기초한다. 이러한 접근은 어휘 의미를 문맥 속에서 실현되는 의미 잠재성(semantic potential)으로 간주한

적 검토 없이 받아들여져 온 경향이 있다. 오랫동안 여러 번역본이 특정 어휘를 일정한 방향으로 번역하면, 우리는 그에 익숙해져서 어떤 문제의식을 느끼기 어렵다. 그러나 끊임없이 보다 나은 성경 번역을 시도해 가야 할 우리는 독자가 이미 익숙하게 받아들여 온 기존 이해와 번역을 그저 반복하기보다는, 보다 발전적으로 나아가기 위해 비판적 관점을 지닐 필요가 있다. 올바른 번역은 본문에 사용된 어휘의 의미 가능성과 문법적 구조를 분석할 뿐 아니라, 그 표현이 원문의 문맥 속에서 수행하는 담화적 기능과 더불어 현대의 상황을 고려한 대응어를 찾는, 번역의 궁극적인 목적까지 함께 고려하는 가운데 이루어져야 함을 기억하면서 말이다.[3] 또한 누가복음 본문 번역 시, 이 책이 공관복음의 하나임을 인지하여 접근할 필요가 있다. 공관복음서의 형성 과정에서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구전적 전승을 비롯, 꽤 복합적인 요인들이 있었음을 고려할 때, 각 복음서 구성자[4]의 복음 기록은 복음 전승의 보존과 더불어 텍스트 구성자의 정체성과 문체, 더 나아가 모종의 의도까지 반영할 가능성이 있음도 함께 고려해 보아야 할 것이다.[5]

이러한 번역 및 공관복음서 관계성에 대한 이해를 간직하며, 본 논문은

다. 이러한 이해의 기초가 될 만한 자료로서 다음을 참조하라. J. Barr, *The Semantics of Biblical Language*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1961), 89-106; S. E. Porter, "θαυμάζω in Mark 6:6 and Luke 11:38: A Note on Monosemy", *BAGL* 2 (2013), 75-79; 참조. M. Silva, *Biblical Words and Their Meaning: An Introduction to Lexical Semantics*, Rev. ed. (Grand Rapids: Zondervan, 1994), 101-117. 이러한 입장에서 이루어진 한국어 성경 번역 논의로는 김두석, "로마서 14:1-2와 15:1의 '믿음이 약한 자'와 '믿음이 강한 자' 번역에 대한 고찰", 「성경원문연구」 54 (2024): 148-171을 보라.

3) 이러한 관점은 성경 번역을 단순한 언어 전환이 아니라 원문의 상황과 현대의 상황을 함께 고려하여 이루어지는, 해석학적이며 목적 지향적인 행위로 이해하는 현대 번역 이론 전반과도 맞닿아 있다. E. A. Nida and C. R. Taber, *The Theory and Practice of Translation* (Leiden: Brill, 1969), 3-8; L. de Vries, "Translations of the Bible and Communities of Believers: A Historical and Functional Perspective on Translating the Bible",「성경원문연구」 23 (2008), 172-195; 성경 번역의 목적(skopos)과 그것이 공동체의 신학 및 해석 전통과 맺는 관계에 대해서는 W. Chung, *Translation Theory and the Old Testament in Matthew: The Possibilities of Skopos Theory*, LBS 15 (Leiden: Brill, 2017)을 보라.

4) 필자는 공관복음의 "저자(author)"라는 다분히 현대적 표현 대신, 복음의 구전 전승의 신실한 담지자이자 최종 복음서 작성에 기여한 측면을 공히 드러낸 표현으로서 "구성자(constructor)"를 선호한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 논문을 참조하라: 안호준, "공관복음서 '저자'의 '의도' 표현의 적실성 탐구",「신약논단」 31:1 (2024), 1-34.

5) 공관복음서는 복음 구전 전승에 대한 유의미한 보존의 터 위에 세워진 것으로 보이며, 동시에 각 복음서의 구성자의 정체성과 복음 이해는 텍스트 형성 과정에 영향을 미친 주요 요인으로 이해될 수 있다. 이러한 관점은 복음서 언어를 사회적 의미 형성과 연결하여 분석하는 체계 기능 언어학(Systemic Functional Linguistics)의 통찰과도 유의미하게 조응한다.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다음의 글을 참조하라: H. J. Ahn, *Finding the Synoptic Gospels' Construction Process: A Comparative-Linguistic Analysis of the Eucharist and Its Co-texts*, LBS 26 (Leiden: Brill, 2024).

누가복음 5:10의 핵심 동사 ζωγρέω에 주목하고자 한다. 사실 이 동사가 지닌 의미 가능성은 성경 번역의 관점에서 그동안 충분히 주목받지 못한 측면이 있다. 이는 부분적으로 누가복음의 해당 장면이 마태복음 4:19와 마가복음 1:17의 병행 본문과 긴밀히 연결되어 읽혀 온 해석 전통과 무관하지 않아 보인다. 두 본문이 모두 어업 은유를 전면에 내세우며 '사람을 낚는 어부'(ἁλιεῖς ἀνθρώπων)[6] 이미지를 형성해 왔기 때문에, 해석자들은 자연스럽게 누가복음의 표현 역시 동일한 은유적 구조 안에서 이해하려는 경향을 가져온 것으로 보인다. 그 결과, 누가가 복음 전승을 통해 보존했을, 혹은 의도적으로 선택했을 가능성이 있는 독특한 용례가 충분히 주목받지 못한 측면이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누가복음의 표현을 공관복음 전승 속에서 단순히 조화시키기보다, 누가복음이 왜 동일한 어업 장면의 흐름 속에서 결이 다른 동사를 품게 되었는지를 묻는 것으로 출발한다. 즉, 누가복음에는 같은 단락에서 어획 장면(그물, 잡음 등)이 충분히 나온 뒤에, 정작 소명 선언에서는 익숙한 어업 어휘를 반복하지 않고 ζωγρέω라는 희귀 동사가 나타나는데, 이 보존 혹은 선택[7]이 그냥 '물고기 대신 사람'이라는 단순 치환을 말한다고 보고 번역할 것인지, 아니면 다수의 학자들이 지적하는 의미를 살려,[8] 붙잡되 '살려 두는' 방향, 다시 말해 '산 채로 붙잡다'라는 방향을

6) 이 말은 직역하면, '사람들의 어부'가 되는데, 이를 의미가 통하게 하기 위한 번역으로 '사람들을 낚는 어부'로 번역해 왔다. 마태, 마가복음은 이 동일한 어휘를 공유한다. 다만 마가복음은 γίνομαι의 부정과거 부정사 형태인 γενέσθαι를 이 단어 조합 앞에 간직하여 '-가 되도록' 정도의 의미를 더 간직하고 있다.

7) 여기서 '보존'과 '선택'을 함께 말하는 것은 누가복음이 다른 복음서와 다른 표현을 간직할 때, 그것이 특수 자료에서부터 온 것일 가능성과 구성자의 선택의 결과로 온 것일 가능성 모두가 열려 있기 때문이다. ζωγρέω 동사의 사용이 다른 자료에서 왔을 가능성을 말할 때, 누군가 이렇게 질문할 수 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를 때 하신 말씀은 하나였을 텐데, 공관복음 내에 두 표현이 나타난 것은 결국 둘 중의 하나가 원래적인 말이라는 것 아닌가?" 이 질문에 대하여, 이런 설명이 가능할 수 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먼저 마태, 마가복음 버전으로 '사람을 낚는 어부'라는 표현을 쓰시자, 제자들이 그게 무엇인지를 물었을 가능성이 있고, 그에 대한 답으로 '사람을 산 채로 붙잡는', 그래서 붙잡음의 결과로 생명에 이르게 하는 역할을 하게 할 것이라는 부연 설명을 주시는 가운데 이 ζωγρέω 동사가 쓰였을 가능성이 있다. 만일 그렇다면, 이 부분은 단순히 누가의 선택이 아닌, 복수 자료 중에서 각 복음서 구성자가 간직한 자료의 차이에서 온 것일 수 있다. 물론, 구성자 누가의 특정 의도와 목적 때문에 ζωγρέω가 선택되었을 가능성도 있다. 그래서 필자는 이 두 가능성을 열어 두고 '보존'과 '선택'이라는 표현을 썼다. 그리고 이 때문에 이 논문에서는 주로 '누가복음은 말한다/드러낸다'의 표현을 주로 사용할 것이다.

8) 많은 학자들은 누가복음 본문의 ζωγρέω 안에 있는 '산 채로 포획하다/잡다'라는 의미에 주목해 왔다. 프랜스(R. T. France)는 여기서 ζωγρέω가 정확히 '산 채로 잡다'(to capture alive)의 뜻을 가짐을 분명히 한다. 이를 통해 프랜스는 이 독특한 어휘가 여기서 사용된 것은 물고기와 같이 잡아서 죽이려는 목적이 아닌, 베드로와 같은 어부들이 예수님을 따르는 그 복, 즉 구원으로 이끄는 복과 관련한 제자들의 독특한 역할과 관련됨을 제시한 것으로 이해한다.

견지하여 번역을 할 것인지가 핵심 사안으로 보인다.

이런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본 논문은 해당 본문에 대한 번역본들을 먼저 비교해 봄으로써 번역 정황을 살펴보고, 이어서 몇몇 고대 그리스어 텍스트와 칠십인역(LXX), 그리고 신약의 다른 용례(딤후 2:26)까지 함께 살핀 뒤, 누가복음 5:10이 속한 내러티브 흐름 속에서 ζωγρέω가 가지는 포괄적 의미를 정리해 볼 것이다. 그리고 이 분석을 바탕으로 ζωγρέω의 적절한 번역에 대해 제안하고자 한다.

2. 주요 번역본 비교

누가복음 5:10의 번역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가 이미 익숙하게 읽어 온 번역본들이 이 구절을 어떻게 이해하고 옮겨 왔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번역본 비교는 단순히 서로 다른 표현을 나열하는 작업이 아니다. 오히려 각 번역이 본문의 의미 중심을 어디에 두고 있는지, 그리고 그 과정에서 그리스어 단어가 지닌 의미적 긴장이 보존되는지 혹은 완화되는지를 점검하는 해석학적 작업에 가깝다. 앞서 언급한 대로, 번역은 단순한 언어 전환이 아니라 목적 지향적이며 해석학적 행위라 할 수 있다.[9] 그

R. T. France, *Luke*, TTC (Grand Rapids: Baker, 2013), 82; 강대훈도 ζωγρέω의 의미가 '산 채로 잡다'라는 기본 의미와 더불어 '생명을 불어넣다, 생명을 돌려 주다'라는 확장된 의미까지 갖는 단어로 보면서, 이 본문에서 이 단어의 의미가 '사람을 잡아 살린다'라는 기본 의미를 갖는다고 본다. 그는 이를 예수의 나사렛 회당 선포의 '회복' 소식과 연결된 것으로 보며(눅 4:18-19; 사 61:1-2), 이러한 눌리고 갇힌 자를 살려내는 일이야말로 제자들의 사명이라 말한다. 강대훈, 『누가복음』 (서울: 홍성사, 2022), 111; 슈라이너(T. R. Schreiner)는 이 단어가 가지는 의미를 '산 채로 낚다'로 보며, 이것이 렘 16:14-15에 언급된 약속, 즉 징벌을 받아 포로로 끌려간 자들이 하나님의 자비로 다시금 돌아오게 되는 구출 약속의 의미심장한 실현으로 간주한다. T. R. 슈라이너, 『누가복음』, 홍병룡 역, ESV 성경 해설 주석 (서울: 국제제자훈련원, 2023), 195-196; 린지(Sharon H. Ringe)는 이 단어를 산 채로 잡다(catch alive)로 보면서, 이 단어가 쓰인 목적이 죽음이 아닌 생명을 얻게 하는 붙잡음이기 때문이라 본다. S. H. Ringe, *Luke*, WBC (Louisville: Westminster John Knox, 1995), 77-78; 테너힐(R. C. Tannehill)은 특별히 ζωγρέω 동사를 언급하지 않고 다만 '잡는다'(to catch)로 번역하지만, 이 내용이 죄인에게 주어질 하나님의 용서에 대한 함의를 담고 있다고 내다본다. R. C. Tannehill, *Luke*, ATC (Nashville: Abingdon, 1996), 102; 김득중은 ζωγρέω가 기본적으로 '생포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LXX에서는 '사람의 생명을 위험으로부터 구해낸다'라는 의미로 사용된 말인 점을 감안하여, 누가가 '사람의 생명을 구한다'는 뉘앙스를 담기 위해 특별히 이곳에서 이 용어를 사용했을지 모른다고 추측한다. 김득중, 『성서주석: 누가복음』, 대한기독교서회 창립 100주년 기념 성서주석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1993), 294. 이 외에도 이와 유사한 이해를 가진 저자들의 저술은 많이 있는데, 그중의 일부가 이후 각주에서 추가로 소개될 것이다.

9) E. A. Nida and C. R. Taber, *The Theory and Practice of Translation*, 12-13.

렇기에, 번역자는 어휘의 의미 가능성과 문법 구조뿐 아니라, 해당 표현이 텍스트 안 문맥 속에서 수행하는 담화적 기능, 그리고 번역본을 활용해 가는 우리의 상황성까지도 함께 고려해서 번역해야 한다. 이 논의에서 번역본을 비교하는 일은 곧 본문이 만들어 내는 의미 역량 및 가능성이 각 번역 속에서 어떻게 재구성되는지를 비교하며 살피는 작업이라 할 수 있다.

그러면 영어 번역본과 한국어 번역본을 차례로 검토하면서, 각각이 누가복음 5:10의 동사 ζωγρέω를 어떤 방향으로 이해하고 있는지를 살펴보자.

2.1. 영어 번역본

누가복음 5:10하반(ἀπὸ τοῦ νῦν ἀνθρώπους ἔσῃ ζωγρῶν)에 대해, 주요 영어 번역본들은 다음과 같이 옮긴다.

RSV	henceforth you will be catching men
NIV	from now on you will fish for people
NAS	from now on you will be catching men
NLT	from now on you'll be fishing for people
KJV	from henceforth thou shalt catch men
ESV	from now on you will be catching men
NIRV(1996)	from now on you will catch people

영어 번역들은 대체로 두 흐름으로 모인다. 하나는 catch 계열이고, 다른 하나는 fish for 계열이다.

먼저 KJV, RSV, NAS, ESV 같은 번역본들은 대체로 "from now on you will be catching men/people"이라는 표현을 사용한다. 이 방식은 앞선 어업 장면과의 연결을 선명하게 유지한다. 독자는 자연스럽게 '물고기를 잡던 어부가 이제 사람을 잡는다'라는 의미 전이를 따라가게 된다. 그러나 문맥을 볼 때, 누가복음은 5:4-9에서 실제 어업 장면을 비교적 일반적인 어휘들로 묘사해 놓고, 정작 소명 선언에서는 신약에 단 두 번 등장하는 희귀 동사 ζωγρέω를 드러낸다. 그럼에도 번역이 이를 다시 "catch"로 고정해 버린다면, 본문 안에 존재하는 어휘적 전환 — 같은 '포획'이지만 성격이 다른 모종의 성질 — 이 번역 결과물에서 감지되지 않게 된다. 다시 말해 본문이 '여기서 뭔가 바뀐다'는 신호를 보내고 있음에도, 해당 번역은 그 변화를 충분히 드러내지 못하게 된다. 가능한 한 쉬운 읽기를 목표로 하는 New International Reader's Version(1996, 이하 NIRV)도 "you will catch people"로

단순화하여 표현할 뿐이다. 번역이 쉬워지면 쉬워질수록 가독성은 좋아질지 모르지만, 여전히 ζωγρέω가 가진 특수한 의미 결은 드러나지 않고 있다.

한편 NIV, NLT는 “fish for people”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여 어부로서의 활동 이미지를 더 전면에 세운다. 이 번역은 ‘잡다’라는 번역에 비해 보다 적극적으로 ‘물고기를 잡다, 혹은 낚다’라는 의미를 담는 번역이라 말할 수 있다. 어떤 점에서 이 번역은 “catch”보다 ‘포획’의 거친 뉘앙스를 완화하는 효과가 있을지 모르지만, 이 경우에도 여전히 어업 은유의 연속성 안에 머물고 있다.

정리하자면 영어 번역 전통은 각자가 번역 철학이 서로 다름에도 불구하고, 결과적으로 ζωγρέω가 만들어 내는 어휘적 긴장을 번역 안에서 직접 살리는 시도는 거의 전무하다고 평가할 수 있다. 읽기 쉽고 신학적으로 안정적인 표현을 확보한다는 의미는 있을지 모르지만, 본문이 형성하는 미묘한 의미 전환이 희석된 형태의 번역을 그저 공유하고 있다. 그렇다면 한국어 번역본의 상황은 어떠할까?

2.2. 한국어 번역본

한국어 성경 번역본들 역시 전반적으로 영어 번역의 흐름을 크게 벗어나지 않지만, 그 양상에는 나름의 특징이 나타난다.

『개역개정』	이제 후로는 네가 사람을 취하리라
『표준』	이제부터 너는 사람을 낚을 것이다.
『새번역』	이제부터 너는 사람을 낚을 것이다.
『현대인의 성경』(1985)	이제부터 너는 사람을 낚을 것이다.
『공동』	너는 이제부터 사람들을 낚을 것이다.
『공동개정』	너는 이제부터 사람들을 낚을 것이다.
『새한글』	이제부터는 그대가 사람들을 잡아 올릴 겁니다.

한국어 번역은 ‘잡다’와 ‘낚다’라는 두 축을 공유하지만, 실제 비중 면에서는 ‘낚다’가 훨씬 강하다. 이러한 경향은 독자를 ‘사람을 낚는 어부’라는 은유적 이미지 안에 깊이 머물게 하는 효과를 낳는다.

『개역개정』의 ‘취하다’는 겉보기에는 비교적 중립적인 단어다. 그러나 실제 독서 맥락에서는 앞선 어업 장면과 연결되면서 결국 ‘사람을 낚는다’는 관용적 이해로 수렴한다. 한자어 특유의 압축성과 고전적 울림은 있지만, ‘산 채로 붙잡다’라는 ζωγρέω의 의미 핵을 독자가 구체적으로 떠올리긴 어렵다.

반면 『표준』, 『새번역』, 『현대인의 성경』(1985) 등은 보다 직접적으로 “사

람을 낚을 것이다"라고 옮긴다. 이해는 쉽지만, 그만큼 소명 장면이 단순한 직업 은유의 전이 — 물고기에서 사람으로 대상만 바뀌는 사건 — 로 고정될 가능성도 커진다. 그 결과 ζωγρέω가 내포할 수 있는 '살려 두는 붙잡음'이나 '상태 전환'과 같은 뉘앙스는 익숙한 이해의 흐름 가운데 가려질 수 있다. 『공동』과 『공동개정』도 거의 동일한 흐름을 공유한다.

이러한 번역 경향은 학계의 번역 작업에서도 확인된다. 정훈택은 공관복음 병행 본문을 비교하기 위해 새롭게 번역한 작업에서 이 구절을 "너는 사람들을 낚을 것이다"라고 옮긴다.[10] 이는 공관복음 다른 본문과의 관련성 속에서 형성된 어업 이미지를 유지하려는 해석적 판단을 보여 주는 대표적인 사례라 할 수 있으며, 이 역시 ζωγρέω의 특별한 의미를 포착하지 못한 채 번역이 진행되었다고 볼 수 있다.

가장 최근 번역된 『새한글』은 '잡아 올리다'는 구어적 표현을 통해 가독성을 높이지만, 이 역시 큰 틀에서는 물고기 포획 이미지를 벗어나지 못하고, 해당 어휘의 독특한 뉘앙스가 희석된 채 번역되었다고 볼 수 있다.

2.3. 공관복음 패러다임과 번역의 관성

이처럼 영어와 한국어 번역본들이 공통적으로 어업 은유를 유지하면서 동시에 ζωγρέω가 갖는 독특한 의미의 결을 놓쳐온 일관된 경향성은 공관복음 병행 본문과의 관계적 독법 관례 속에서 이해될 필요가 있다. 마태복음 4:19와 마가복음 1:17은 모두 "사람을 낚는 어부(사람들의 어부)"라는 명시적 표현을 사용하면서 제자 소명을 어업 이미지로 규정한다. 이러한 병행 본문의 표현은 기독교 해석 전통 속에서 강력한 상징으로 자리 잡았고, 독자들은 자연스럽게 누가복음의 장면 역시 동일한 은유 구조 안에서 읽어 왔던 면이 있어 보인다.

그러나 누가복음의 서술은 미묘한 차이를 드러낸다. 누가복음은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이 공유한 "어부"라는 명사를 반복하지도 않고, 누가복음 인접 문맥 안에서 활용되는 '낚다/잡다'는 동사를 반복하지도 않는다. 대신 희귀 동사 ζωγρέω가 등장한다. 공관복음 연구가 보여 주듯, 복음서에는 공통 복음 전승을 공유하면서, 동시에 구성자 각자의 언어 스타일이 배어든 모종의 의도적 표현이 사용되었을 가능성이 함께 열려 있다.[11] 따라서 병행 본문

10) 정훈택, 『완벽한 비교를 위해 새로 번역한 병행사복음서』 (서울: 민영사, 2013), 63.

11) 참조. H. J. Ahn, *Finding the Synoptic Gospels' Construction Process: A Comparative-Linguistic Analysis of the Eucharist and Its Co-texts*, 44-52.

과의 유사성만을 근거로 의미를 동일시하는 접근은 누가복음 자료의 특성 혹은 누가의 서술 전략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할 위험이 있다.

결국 질문은 다음과 같이 제기된다. 누가복음은 왜 제자들의 소명 기사인 누가복음 5:10에서 다른 병행 복음서와는 다른 동사를 품게 되었는가? 하나의 단락 안에서 드러나는 이러한 어휘 대비는 설명을 요구한다. 그간의 번역 전통이 그 대비를 번역 단계에서 충분히 드러내지 못한 채, 기존의 익숙한 어업 은유의 연장으로 회귀시켰다면, 이는 분명 재고되어야 한다. 이러한 문제를 보다 분명하게 살펴보기 위해, 다음 장에서는 ζωγρέω가 고전 그리스어 문헌과 성서 속에서 어떻게 사용되는지를 통시적으로 검토함으로써 그 핵심 의미를 정밀하게 규명해가고자 한다.

3. 고대 그리스어 텍스트 용례에서의 ζωγρέω 의미 범위

앞 장에서 번역본들을 살펴보면, 한 가지 공통점을 발견하게 된다. 누가복음 5:10의 ζωγρέω는 번역 과정에서 꽤 이른 단계부터 '낚다/잡다' 같은 익숙한 말로 정리 및 평준화되어 왔고, 그 결과 본문이 품고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 미묘한 대비 — 곧 물고기 잡는 말과 사람을 향한 선언의 말 사이의 긴장 — 가 번역 속에서는 잘 드러나지 않는다는 점이다. 그래서 이 동사가 고대 그리스어 텍스트 안에서 어떤 의미로 쓰였는지에 대해 살필 필요가 있다. 특히 신약성경에서 ζωγρέω는 누가복음 5:10과 디모데후서 2:26, 두 번밖에 안 나오지 않기에, 신약 텍스트 분석만으로는 의미를 살피기 어렵다. 그렇기에 먼저 고대 그리스어 일반 문헌에서 이 말이 실제로 어떻게 쓰였는지를 확인해 보고, 그것을 일종의 '기준점'으로 삼는 것이 순서상 자연스러워 보인다. 이 작업을 하기 전에 먼저 주요 그리스어 사전에서 제시하는 ζωγρέω의 의미를 좀 살펴보고 진행하기로 하자.

3.1. 사전적 중심 의미: '산 채로 붙잡다'

주요 그리스어 사전들은 ζωγρέω를 '산 채로 붙잡다(to take alive)'로 번역하면서, 전쟁이나 사냥 같은 거친 상황에서, '죽이지 않고 생포하다(take captive instead of killing)'라는 뉘앙스를 가지고 있음을 드러낸다.[12] 여기서

12) 리델(H. G. Liddell) 등의 저자는 ζωγρέω를 "take, save alive, take captive instead of killing"으로 의미 제시하고 있으며, 이 단어가 죽이지 않고 산 채로 잡는 행위를 나타냄을 드러낸다.

중요한 포인트는 다음과 같다. 이 단어는 그냥 '잡다'가 아니라, 잡되 '살려 둔다'는 결과를 기본값으로 포함하는 '포획'의 의미를 지니고 있다. 다시 말해, 행위 자체보다도 '그다음 상태' — 곧 살아 있음 — 을 눈에 띄게 강조하는 동사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죽음과의 대비가 이 단어에 붙어 있다. 특히 전쟁의 결과를 전할 때, '죽이다'와 '산 채로 사로잡다', 이 두 범주를 구분해 말하는 습관이 꽤 분명하게 나타나는데, ζωγρέω는 그중 후자에 해당한다.

3.2. 그리스어 고전 문헌 용례

앞서 살펴본 사전의 의미가 실제 예문들에서 어떻게 드러나는지, 그리스어 고전 중에서 호메로스부터 살펴보도록 하자.

3.2.1. 호메로스

호메로스의 『일리아스』에는 이런 구절이 나온다. ζώγρει, Ἀτρέος υἱέ, σὺ δ' ἄξια δέξαι ἄποινα.[13] 이는 이렇게 번역 가능하다. "아트레우스의 아들이여, 그를 죽이지 말고 산 채로 붙잡아라. 그리고 합당한 속전을 받으라." 여기서 '산 채로 붙잡는' 생포는 단순한 군사적 기술(記述)이 아니라는 것이 흥미로운 지점이다. '살려 두라'는 선택이 곧바로 ἄποινα, 그러니까 교환, 협상, 처분의 가능성과 연결된다. 죽이면 끝나지만, 산 채로 잡으면 그다음 이야기로 이어진다는 것이다. 여기서 생포는 죽음의 결말을 유보하는 행위이자, 이후 자신에게 유리한 어떤 보상을 받는 것과 연결된 행위로 이해 가능하다.

3.2.2. 투키디데스

투키디데스의 『펠로폰네소스 전쟁사』에서도 앞과 유사한 용례가 등장한다. ἄνδρας τε τοὺς μὲν ἀπέκτειναν, τινὰς δὲ καὶ ἐζώρησαν.[14] 이렇게 번역 가능하다. "사람들 가운데 어떤 이들은 죽였고, 어떤 이들은 산 채로 사로잡았다." 여기서는 ἀποκτείνω(죽이다)와 ζωγρέω(생포하다)가 병렬로 배치된다. 여기서 '생포'은 '죽임'과 매우 선명한 대조를 이루며, 의미 범주 면에서

H. G. Liddell, et al., *A Greek-English Lexicon*, 7th ed. (New York: Harper, 1883), 637; 다이어(J. H. Thayer)는 이 어휘가 '산 채로 잡다'(to take alive), '포획하다'(capture)라는 의미를 지닌다고 보았다. J. H. Thayer, *A Greek-English Lexicon of the New Testament*, 4th ed. (Milford: Mott Media, 1977), 273.

13) Homer, *Iliad* 6.46.

14) Thucydides, *Historiae* 2.92.2.

전혀 다르게 서술된다. 전투 이후에 누군가는 죽었지만, 누군가는 살아남았다. 비록 붙잡힌 형태이지만, 살아남음이 강조되는 그 상황성을 동사 ζωγρέω가 묘사하고 있다.

투키디데스의 동일한 글에 등장하는 또 다른 구절을 보자. πλὴν ὅσον ἐκ τριῶν νεῶν οὓς ἐζώγρησαν.[15] 이렇게 번역 가능하다. "다만 그들이 세 척의 배에서 산 채로 사로잡은 자들만은 제외하고 …". 여기서도 강조점은 단지 '잡았다'가 아니라, 붙잡아 살아 있는 상태로 따로 분류되는 사람들이 있다는 점에 실린다. 다시 말해 ζωγρέω는 '획득'의 사실을 드러내기 위한 일반적 표현이 아니라, 살아남은 쪽을 별도로 표시하는, 일종의 표지와 같은 기능을 한다고 말할 수 있다.

3.2.3. 의미 망 정리

여기까지를 종합하면, 고대 그리스어에서 ζωγρέω는 대략 다음의 의미적 윤곽을 가진다고 정리할 수 있다. (1) 주로 전쟁, 폭력, 위기와 같은, 다분히 거친 상황에서 쓰인다; (2) 이 동사는 '죽임' 계열 동사와 대비적으로 사용되곤 한다; (3) 핵심은 '살려서 붙잡다', 곧 생명의 보존이다. 그런데 바로 여기서 누가복음 5장과 긴장이 생긴다. 해당 장의 흐름 속에 지속되는 표현인 물고기 포획은 사실 죽음과 소비를 전제하는 행위인데, ζωγρέω는 기본적으로 '살려 둔다'라는 의미를 품고 있다. 그러니 누가복음 5:10이 이 동사를 쓴 용례는 그저 대상만 물고기에서 사람으로 바뀌는 것 정도의 차이를 넘어설 가능성이 농후하다. 포획의 결론 자체가 바뀌는 발화, 즉 죽음으로 향하는 포획이 아니라 생명을 향한 포획의 의미를 암시하고 있다고 보는 것이 자연스러워 보인다.

다만, 여기서 너무 빨리 결론을 확정할 필요는 없다. 고전 용례는 어디까지나 언어 표현의 한 기준점을 제공한다 볼 수 있다. 이제 다음 단계로 칠십인역과 신약 본문에서 이 단어가 어떻게 활용되고 있는지 살필 필요가 있다. 이제 칠십인역과 신약 용례를 중심으로, 이 단어가 성경 담화 안에서 기존 문헌들의 의미가 유지되는지, 혹은 확장되는지, 그리고 이러한 관찰이 누가복음 5:10 번역에 어떤 함의를 주는지 등을 차근차근 살펴보자.

3.3. 칠십인역과 신약에서의 용례

앞에서 우리가 확인한 대로, ζωγρέω는 고전기에 대체로 '죽이지 않고 산

15) Thucydides, *Historiae* 7.23.4.

채로 붙잡다'라는 의미를 유지해 온 것으로 보인다. 그러면 성경 그리스어 — 특히 칠십인역과 신약 — 에서도 이 의미 구조가 그대로 이어지는가, 아니면 새로운 방향으로 나아가는가? 신약성경의 단어들은 상당 부분 칠십인역의 언어 감각을 바탕으로 활용되는 경향성이 발견되는 측면이 있기에,[16] ζωγρέω가 먼저 칠십인역에서 어떻게 사용되는지 살펴보고, 그다음에 신약 본문의 용례(딤후 2:26; 눅 5:10)를 비교하여 살펴보도록 하자.

3.3.1. 칠십인역

칠십인역에서 ζωγρέω는 자주 나오지는 않지만,[17] 나올 때는 대체로 분명한 의미 결을 유지한다. 대표적으로 민수기 31:18의 전쟁 서술에서 이런 명령이 나온다. πᾶσαν τὴν ἀπαρτίαν τῶν γυναικῶν ἥτις οὐκ οἶδεν κοίτην ἄρσενος ζωγρήσατε αὐτάς.[18] 이렇게 번역 가능하다. "남자와 동침하지 아니한 모든 여자는 너희를 위하여 살려 두어라." 여기서 ζωγρέω는 그냥 '구해 주라'라는 말이라기보다, 전쟁의 결과물을 나누는 차원의 말로 들린다. 이미 앞에서 남자들은 죽임을 당한 상태이고, 그다음에 '이 사람들은 살리라'라는 말이 이어진다. 그 구조는 대략 이렇다. (1) 죽임: 심판(혹은 전쟁의 처분)이 끝까지 간 상태; (2) 생포/생존: 죽음과는 확연히 다른 결과로서의 '살려 둠'. 그런데 여기서 주목해 볼 것은, 이 '살려 둠'이 그저 온정 넘치는 말만은 아니라는 점이다. 고대 전쟁 이야기에서 '살려 둔다'는 것은 단순한 자비의 행위라기보다는, 그 존재에 대한 처분 권한을 확보한다는 의미를 동반하는 경우가 많다.[19] 이렇게 볼 때, 이 문맥에서 ζωγρέω는 권한을 가진 자의 상황을 진술하는 표현으로 기능했을 가능성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말은 분명히 '죽음'과 구별되는 상태 — 곧 살아 있음 — 를 명확히 드

16) 이러한 칠십인역의 언어적 감각이 신약 본문 구성에 영향을 준 것에 대한 유의미한 논의로서 다음을 참조하라: C. W. Jung, *The Original Language of the Lukan Infancy Narrative*, JSNTSup 267 (London: T. & T. Clark, 2004).

17) 칠십인역에서 ζωγρέω는 민 31:18; 신 20:16; 수 2:13; 2 마카비 12:35에서 사용된다. 본고는 이 중 민 31:18과 수 2:13을 분석 대상으로 택했다. 본고에서 다루지 않은 나머지 케이스들을 간단히 살피면 다음과 같다. 신 20:16에서는 가나안 성읍들에 대해 "아무도 살아남게 하지 말라"라는 명령이 주어지는데, 이는 곧 ζωγρέω(산 채로 붙잡다)를 의도적으로 배제하는 명령으로, 이 동사가 본래 살려 두는 포획을 의미함을 역설적으로 드러낸다. 2 마카비 12:35에서는 전투 중 적을 죽이지 않고 ζωγρέω로 사로잡는 행위가 언급되는데, 이는 생존을 전제한 포획이 이후의 처분과 통치 권한 확보와 연결되는 전형적인 헬레니즘 전쟁 용례를 보여 준다고 볼 수 있다.

18) A. Rahlfs and R. Hanhart, ed., *Septuaginta* (Stuttgart: Deutsche Bibelgesellschaft, 2006).

19) Polybius, *Histories* 10.15.4-7. 여기서 폴리비우스는 전쟁 이후 적을 살려 두는 결정이 감정적 자비의 문제가 아니라, 전리품의 처리와 점령지 통치를 고려한 전략적 판단의 일부로 논의됨을 드러낸다.

러낸다. 이 단어가 가지고 있는 이러한 긴장은 다음 단계로 이어지며, 매우 의미심장한 여지를 남긴다고 말할 수 있다.

여호수아 2:13의 칠십인역 본문도 ζωγρέω의 의미 결을 보여 주는 중요한 본문으로 보인다. 라합은 정탐꾼들을 숨겨 준 뒤, 그들에게 자신과 가족의 생명을 보장해 달라고 요청하며 다음과 같이 말한다. καὶ ζωγήσετε τὸν οἶκον τοῦ ματρός μου καὶ τὴν μητέρα μου καὶ τοὺς ἀδελφούς μου καὶ πάντα τὸν οἰκόν μου καὶ πάντα ὅσα ἐστὶν αὐτοῖς καὶ ἐξελεῖσθε τὴν ψυχήν μου ἐκ θανάτου.[20] 이는 이렇게 번역 가능하다. "내 아버지의 집과 어머니와 형제들, 곧 내 온 가족과 그들에게 속한 모든 것을 죽이지 말고 살려 두며, 내 생명을 죽음에서 건져 주십시오."

여기서 눈여겨볼 부분은 두 동사의 문법적 관계와 의미상의 흐름이다. 먼저 ζωγρέω(ζωγήσετε)는 라합의 가족과 그들에게 속한 모든 것을 목적어로 취하며, 전쟁 상황 속에서 그들을 죽이지 않고 살려달라는 요청을 표현한다. 이어지는 ἐξαιρέω(ἐξελεῖσθε)는 별도의 목적어인 τὴν ψυχήν μου를 취하면서, 화자 자신의 생명을 죽음에서(ἐκ θανάτου) '끌어내 달라'라는 보다 직접적인 구원을 호소한다. 이 문맥을 고려할 때, 여기서 ζωγρέω는 단순히 '살려 달라'라는 요구라기보다, 이미 죽음 쪽으로 기울어진 상황에서 개인의 건짐을 포함하여 집단적 보존을 요청하는 호소로 이해 가능하다.[21]

민수기에서는 ζωγρέω가 전쟁 이후의 '선택적 생존'을 가리키는, 다시 말해 권력의 언어에 가까워 보였다면, 여호수아 본문에서는 그 의미가 다소 완화되어 보호와 보존의 요청으로 사용된다. 그리고 여호수아 본문의 "죽음에서(ἐκ θανάτου)"라는 표현과 결합된 ἐξαιρέω 용례는 생명과 죽음의 경계에서 이루어지는 구출 행위를 더욱 선명하게 부각시킨다. 결국 본문은 생포(ζωγρέω)와 구출(ἐξαιρέω) 언어의 구별과 연결을 통해, 보존과 구원의 의미 층위를 점층적으로 확장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물론 여기서의 ζωγρέω를 곧바로 '구원 언어'라고 단정하기는 좀 어려울 것이다. 이 용례들은 모두 전쟁 서사를 바탕으로 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칠십인역 용례 분석에 관해 우리는 최소한 이렇게는 말할 수 있을 것이다. 여기서 ζωγρέω는 단순한 포획이 아니라 죽음에서 벗어나 살아 있게 되는 상태를 가리킨다. 이를 염두에 두면, ζωγρέω는 붙잡는 행위가 단순한

20) A. Rahlfs and R. Hanhart, ed., *Septuaginta*.

21) 이 지점에서 우리는 ζωγρέω 동사가 개인에 국한되기보다 공동체를 향해 유의미하게 사용될 수 있음을 확인하게 된다. 이 동사는 마치 물고기를 모으듯 여럿을 포획하는 외형적 특성을 지니면서도, 그렇게 모은 대상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살려 두는 결과를 지향한다는 점에서 독특한 의미 결을 드러낸다.

확보가 아니라 생명을 보존하는 방향으로 이해될 여지가 이미 칠십인역 본문 안에 마련되어 있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여호수아 2:13은 ζωγρέω가 ἐξαιρέω와 함께 사용되는 가운데, '생포'의 의미를 넘어 죽음에서 생명을 향한 이동으로서의 '구원'적 표현으로서의 가능성을 보여 주는, 유의미한 본문으로 간주될 수 있다.

3.3.2. 디모데후서 2:26

누가복음 5:10과 더불어 신약에서 ζωγρέω가 나오는 곳은 디모데후서 2:26뿐이다. καὶ ἀνἀνήψωσιν ἐκ τῆς τοῦ διαβόλου παγίδος, ἐζωγρημένοι ὑπ' αὐτοῦ εἰς τὸ εκείνου θέλημα. 이렇게 번역 가능하다. "그들이 마귀의 올무에서 벗어나 정신을 차리게 되기를 — 그의 뜻을 따르도록 그에게 산 채로 사로잡힌바 되고 있는 자들로서." 여기서 ἐζωγρημένοι는 ζωγρέω의 완료 수동 분사로서, 산 채로 잡힌 사건에 대하여 말하고 있는 화자의 시상적 현저성이 최전방 정보로 드러나는 지점이며, 이 동사가 수동태로 제시됨으로써 그 현저성의 무게가 더 실리고 있다.[22] 현저성뿐 아니라 의미상 산 채로 잡혀 있는 상태가 이어지는 진행적 요소도 더불어 살필 수 있는데, 그 상태는 매우 부정적으로 그려진다. 붙잡힌 바 된 상태로 살아는 있지만, 그 살아 있음이 자유가 아닌 지배(그것도 마귀의 지배)로 이어지는 형국이다. 이러한 용례는 ζωγρέω가 다만 긍정적으로 생명이나 구원을 함의하는 동사로 활용되지 않을 수 있음을 보여 준다. 오히려 이 동사는 살아는 있으나, 누군가의 지배 아래 놓인, 일종의 '포로 상태'를 표현하는 데 사용되고 있다고 할 수 있다.[23] 이것은 앞서 전쟁의 포로가 되어 자신을 사로잡은 자의 목적에 따라 그 생명의 목적성과 방향성이 사용될 수 있었던 것과 유의미하게 공명될 수 있다(비교. 민 31:18).

그런데 이 본문과 누가복음 5:10을 비교하여 읽을 때, 흥미로운 대비가 생긴다. 같은 동사가 디모데후서 2:26에서는 마귀의 붙잡음을 드러내고, 누가복음 5:10에서는 예수의 사명 선언으로 등장하고 있기에, 독자 입장에서는 이 대비에 대해 다음의 질문이 가능하다. '붙잡힘' 자체가 화두라기보다, 누구에게 붙잡히느냐, 그리고 그 붙잡힘은 어느 방향으로 작동하는가가 핵심 아닌가? 다시 말해, 지배의 주체가 바뀌는 전환이 여기서 핵심 사안으로

22) S. E. Porter, *The Pastoral Epistles: A Commentary on the Greek Text* (Grand Rapids: Baker Academic, 2023), 613. 여기서 포터(S. E. Porter)는 ζωγρέω의 의미를 '산 채로 사로잡다'(take a captive alive)로 적절히 번역한다.

23) P. H. Towner, *The Letters to Timothy and Titus*, NICNT (Grand Rapids: Eerdmans, 2006), 549-550.

부각될 수 있다. 즉, 디모데후서 2:26은 의미상 '산 채로 붙잡혔는데, 그게 오히려 죽는 것보다 끔찍한 상태일 수 있다'라는 중요 함의를 지닌 것으로 보이며, 이는 누가복음 5:10에서의 ζωγρέω 용례와 연속성과 더불어 매우 큰 불연속성을 갖게 하는 대목일 수 있다.

3.3.3. 누가복음 5:10 번역

이제 핵심 논제인 누가복음 5:10 번역으로 들어가 보자. 본문은 다음과 같다. Μὴ φοβοῦ· ἀπὸ τοῦ νῦν ἀνθρώπους ἔσῃ ζωγρῶν. 직역을 한다면 이렇게 번역 가능하다. "두려워하지 마라. 이제부터 너는 사람들을 산 채로 포획하는/붙잡는 자가 될 것이다." 여기서 주목할 만한 지점은 두 가지 정도로 보인다. 첫째, ζωγρῶν (현재 능동태 분사)는 '한 번 하고 끝'이 아니라, 앞으로 계속 이어질 정체성을 그리는 말처럼 보인다. 예수가 베드로에게 새로운 임무 하나를 던져 준다기보다, 그가 앞으로 어떤 방향성을 따라 살아갈지를 보여 주는 말로 이해 가능하다. 둘째, 이 말은 바로 앞의 어업 장면 위에 얹어져 있다. 어업은 기본적으로 '잡아서 먹는 것'이고, 결국 죽음과 소비가 따라온다. 반면 ζωγρέω는 본래 '살려서 붙잡다'라는 의미 결을 가지고 있으니, 이 흐름 속에서 모종의 어색함이 있다. 문맥이 만들어 내는 어색함은 이 말이 가지는 의미적인 강도를 더하는, 일종의 도드라짐을 만들어 내는 측면이 있다고도 말할 수 있다.

이러한 의미에서 누가복음 5:10은 '물고기 잡던 사람이 이제 사람도 잡는다'라는 정도로만 읽히기보다, 붙잡음의 결과가 전혀 달라질 것을 드러내는 선언으로 이해하는 것이 자연스러워 보인다. 다시 말해, 물고기 포획은 결국 죽음/소비로 가는 포획인 반면, 사람에 대한 ζωγρέω는 '살아 있게 붙잡는' 것으로서의 포획인 것이다. 이러한 극적 대비가 이 본문 흐름에 내재해 있으면서, 매우 유사해 보이나 전혀 다른 결과를 낳는 행위 간의 내용이 부각되는 측면이 있어 보인다.

3.3.4. 정리: 이것을 '생포 → 구원'이라고 말할 수 있나?

지금까지 살핀 ζωγρέω 용례의 의미를 정리해 보자. 지금까지 본 큰 흐름은 대략 다음과 같이 요약 가능하다.

(1) 고전 그리스어: 죽이지 않고 산 채로 붙잡다(생포)
(2) 칠십인역: 죽임과 구별되는 '살려 둠'(생명 유지)[24]

24) 그러나 앞서 살핀 대로 칠십인역의 용례는 민수기 맥락에서 권력/처분의 언어일 수 있으며,

(3) 디모데후서 2:26: 살아는 있으나 포로 된 상태(부정적 지배)
(4) 누가복음 5:10: 제자 사명 선언(붙잡아 생명을 주는 방향)

지금까지의 분석을 좀 더 자세히 정리하면, 다음의 표와 같이 표현될 수 있다.

<표 1> ζωγρέω의 의미 결 분석

텍스트	상황	의미
『일리아드』	전쟁	죽이지 않고 산 채로 생포함
『펠로폰네소스 전쟁사』	전쟁	죽임과 대비되는 생포
민 31:18	전쟁	죽이지 않고 살려 둠
수 2:13	생명 보호 요청	죽음에서 벗어나는 생존
딤후 2:26	영적 포로 됨	산 채로 포로 된 상태
눅 5:10	제자 소명	붙잡아 살게 함

이 흐름을 보면, 성경의 용례가 이 단어를 완전히 다른 말로 바꿔 버린 것이 아니라, 기존 의미의 뼈대를 유지한 채로, 그걸 어떤 방향으로 쓰느냐를 더 강하게 묻는 쪽으로 향해 온 흐름이 보인다. 그러니 '생포가 곧 구원이다'라고 단정하기는 어렵지만, 누가복음 5:10에서는 적어도 '살려서 붙잡는 붙잡음'이 어디를 향하느냐가 신학적으로 중요한 질문으로 이어질 수 있다.

그리고 이 지점은 우리가 이 부분을 번역할 때 반드시 고려되어야 할 지점이다. ζωγρέω를 그저 '낚다'라고 번역하면, 독자는 거의 자동으로 '잡아서 끌어올린다'는 어업 그림만 떠올리기 쉽다. 그런데 만약 누가복음이 굳이 ζωγρέω를 드러내며 '살아 있음'이라는 결을 제시하고 있다면, 번역은 그 의미 뉘앙스를 조금이라도 살려 주는 방향으로 가는 것이 적절해 보인다.

3.3.5. 번역을 향한 함의

여기까지의 논의를 번역으로 바로 연결하면, 필자는(너무 단정하지 않고 말하자면) 최소한 다음 세 요소가 우리 번역 논의 자리에 올라와야 한다고 본다. (1) 포획(붙잡음); (2) 생존(살려 둠); (3) 방향 전환(누구에게/어디로 붙잡히는가). 그래서 예를 들어, 이를 '낚다' 하나로 처리하는 번역은 편하긴 하지만, 이 세 요소 중 적어도 둘(생존, 방향 전환)을 독자에게 거의 전달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 반대로 '산 채로 포획하다/생포하다'라는 번역은 해당 단어의 의미를 살리긴 하지만, 한국어 문장으로는 좀 거칠고 낯설 수

여호수아 본문에서는 살려 둠의 의미에서 구원을 향해 나아가는 모종의 단계적 흐름을 볼 수 있다.

있다. 그래서 (아직은 잠정적으로) 이런 식의 번역이 하나의 타협안이 될 수도 있다. '이제부터 너는 사람들을 붙잡아 살리는 자가 될 것이다.' 이 표현도 완벽하다고 단정할 수는 없지만, 적어도 '낚다'가 만드는 평면성에서 벗어나려는 시도는 된다.

3.3.6. 소결론

정리하면, 성경 본문 속에서 ζωγρέω는 이전의 용례와 단절되기보다, 그 본래 의미(살려서 붙잡음)를 유지한 채로 '그 붙잡음이 누구의 지배인가, 어떤 결말로 가는가'라는 질문을 더 강하게 만든다고 볼 수 있다. 누가복음 5:10은 바로 그 질문을 제자도의 언어로 끌고 들어오는 텍스트일 수 있다. 이제 다음 장에서는 이런 어휘적 관찰이 실제로 누가복음 5:1-11의 이야기 흐름 속에서 설득력을 얻을 수 있는지 — 즉, 해당 서사의 흐름이 정말 '죽음에서 생명으로의 방향 전환'을 이끌고 가는지 — 를 좀 더 입체적으로 확인해 보려 한다.

4. 누가복음 내러티브 안에서 ζωγρέω의 기능

앞 장에서 꽤 분명해진 것이 있다. ζωγρέω는 그냥 '잡다' 정도의 말이 아니라, '붙잡아 살게 하다'라는, '살림'의 결과를 강하게 부각시키는 단어로 이해 가능하다. 그런데 사실 단어의 기본 뜻만으로는 아직 부족한 점이 있다. 단어 자체 의미가 아무리 선명해 보여도, 그 단어가 이야기 속에서 어떤 자리를 차지하느냐에 따라 의미가 달라지기도 하고, 또 독자가 느끼는 의미 뉘앙스가 달라지기도 한다. 그래서 이 장에서는 누가복음 5:1-11 내러티브 안으로 들어가서, 이 동사가 실제로 어떤 역할을 하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여기서 질문이 두 가지로 정리될 수 있다. (1) 누가복음은 5:10에서 왜 앞의 문맥에 따라 '(고기) 잡다' 계열 동사를 안 쓰고, 굳이 ζωγρέω를 사용하고 있을까? (2) 그 선택이 제자도를 어떤 성격으로 규정하는 걸까? 이 질문을 가지고 본문 내러티브의 흐름을 살펴보자.

4.1. 누가복음 5:1-11의 흐름과 5:10의 기능

피츠마이어(J. A. Fitzmyer)는 누가복음 5:1-11을 단순한 기적 이야기라기

보다, 소명 이야기로 읽는다.[25] 실제로 본문을 따라가 보면, 이 사건은 기적을 경험한 자들의 감탄으로 마무리되지 않는다. 오히려 기적은 사람을 특정한 인식의 자리로 몰아가고, 그 지점에서 예수의 말이 방향을 다시 설정하는 방식으로 전개된다.

이 흐름을 좀 거칠게 정리하면 이렇게 말할 수 있다. (1) 군중이 몰려오고, 예수는 가르친다(5:1–3); (2) 시몬은 "밤새 수고했는데(κοπιάω) 아무것도 잡지 못했다"(5:5)라고 말한다(이는 단순한 사실 보고라기보다, 실패의 축적을 드러내는 고백에 가까워 보인다); (3) 그러나 예수의 말에 따라 그물을 내리자, 상식의 한계를 넘어서는 포획이 일어난다; (4) 시몬은 이 앞에 기뻐하기보다 무너진다: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소서"; (5) 바로 이 지점에서 예수는 "두려워하지 마라"라고 말하며, 곧이어 그들의 정체성을 다시 정의하는 말(ἀπὸ τοῦ νῦν ⋯ ζωγρῶν)을 덧붙인다; (6) 그리고 이 이야기는 그 어부들이 "모든 것을 버리고 따랐다"로 마무리된다.

이러한 전개 속에서 누가복음 5:10의 의미를 살피면, 이는 단순한 격려의 말이나 미래 직업에 대한 비유적 선언으로 보기 어렵다. 오히려 앞서 일어난 실패, 과잉된 포획, 죄인이라는 자기 인식, 그리고 두려움이라는 정서 전체를 재해석하면서, 그 의미를 앞으로의 삶의 방향으로 전환시키는 문장으로 기능한다고 볼 수 있다. 다시 말해, 누가복음 5:10은 본 단락 서사의 정점이면서 동시에 방향 전환의 축에 해당한다고 말할 수 있다. 보봉(F. Bovon) 역시 이 본문의 초점을 기적 그 자체가 아니라, 누가복음 5:10에 나타난 예수의 결정적인 말을 통해 제자도의 전환으로 수렴되는 데에 진정한 초점을 두어야 한다고 본다.[26]

이처럼 누가복음 5:10은 서사적으로도, 신학적으로도 하나의 '전환 문장'으로 읽힐 수 있는데, 우리가 계속 묻는 질문은 과연 이 문장이 실제로 어떤 의미 결을 가지고 있고, 어떻게 번역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인가와 관련된다. 여기서 ζωγρέω 동사를 어떻게 번역할 것인가?

4.2. 문장 흐름을 따른 우리의 기대를 벗어나는 단어 출현

누가복음 5:1-11에는 어업 어휘가 정말 많이 나온다. 독자는 사실 이걸 읽

25) J. A. Fitzmyer, *The Gospel According to Luke I-IX*, AB 28 (New York: Doubleday & Company, 1979), 560.

26) 보봉(F. Bovon)은 ζωγρέω를 자세히 다루진 않지만, "산 채로 잡는다"(catch alive)로 번역하면서, 이 단어의 중심된 뜻을 자신의 번역에 담는다. F. Bovon, *Luke 1: A Commentary on the Gospel of Luke 1:1-9:50*, Hermeneia (Minneapolis: Fortress, 2002), 170-171.

으면서 '아, 어부 이야기구나'라고 자연스럽게 생각하게 된다. 대표적인 예가 δίκτυα(그물), ἰχθύες(물고기), ἁλιεύειν(고기를 잡다) 같은 어업 세계의 언어, 그리고 κοπιάω(수고하다) 같은 노동 언어 등이 있다. 그런데 이 정도로 어업 어휘를 본문이 담고 있는 상황이라면, 예수가 베드로에게 "이제 사람도 잡아라/낚아라"라고 말할 때, 독자는 당연히 이전 문맥에서 사용된 '잡다/낚다' 계열 동사가 올 거라고 기대하게 된다. 예컨대 아주 단순하게 말하면 이런 식 말이다. "너는 사람을 낚을 것이다(ἁλιεύσεις ἀνθρώπους)."

그런데 누가복음은 우리의 이러한 기대를 벗어난다. 이 자리에 별안간 ζωγρέω가 나온다. 앞서 살폈지만, 이것이 누가가 취한 자료에서 온 것인지, 누가 자신의 의도인지에 대해서는 단정하기 어렵다. 다만, 누가가 어휘 선택을 통해 의미의 결을 조정하는 데 능숙한 저자라는 점을 생각하면, 자신이 받은 복음 전승을 받는 과정에서 이를 특별한 목적으로 취했을 가능성은 충분히 생각해 볼 수 있다. 그린(J. B. Green)도 이 본문이 앞으로 제자들이 하게 될 일의 성격이 이전과 얼마나 달라질지를 드러내는, 생명과 자유를 주는 존재로의 이행을 담은 본문으로 이해한다.[27] 그러니까 겉으로는 어부 이야기의 연속이 유지되는데, 정작 핵심 의미는 이전과는 다른 층위로 옮겨 가는 셈이다.

4.3. 포획의 역설: '잡히는 것'이 죽음이 아니라 생명으로 가는 길?

앞서 살펴본 내용을 좀 정리해 보자. 어업의 본질은 사실 분명하다. 잡힌 물고기 → 결국 죽음 → 소비. 그러니까 이런 어업 용어인 '낚는다'라는 은유적 표현을 그대로 사람에게 옮기면, 말이 좀 이상해지기도 한다. 물론 설교 전통 속에서는 '사람을 낚는다'가 선교를 뜻하는 관용어처럼 굳어져 있어서, 우리가 그 이상함을 잘 못 느끼고 지나가긴 한다. 그런데 누가복음이 여기서 특수어휘 ζωγρέω를 드러내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는 그 이상함을 그냥 덮어두지 말고 끈덕지게, 진지하게 물어봐야 할 것이다. "왜 이 단어인가?", "같은 포획인데, 그 결과는 같은가?" 마샬(I. H. Marshall)은 ζωγρέω의 칠십인역 용례를 들어 설명하면서, 위기에 있는 자를 살리고 구하는 사명이 이제 제자들에게 주어진 것이라 이해할 수 있음을 명료하게

27) 여기서 그린(J. B. Green)은 이 부분이 갖는 의미에 대해, 제자들이 더 이상 그저 시장에 죽은 고기를 잡아 파는 어부의 존재가 아니라, 사람들을 붙잡아 "자유"를 주는 일을 하는 사람으로 그 존재가 완전히 달리 부름을 받는 사건에 대해 말한다. 그린은 ζωγρέω를 "capture alive"로 번역함으로써 그 안에 담긴 '산 채로 포획한다'라는 의미를 적절히 드러낸다. J. B. Green, *The Gospel of Luke*, NICNT (Grand Rapids: Eerdmans, 1997), 234-235.

드러낸다.[28]

그러니 이러한 초점에서 볼 때, 누가복음 5:10의 선언은 '대상이 바뀌었다(물고기 → 사람)' 정도로 끝나는 게 아니라, 포획의 결과가 뒤집히는 전환을 암시하고 있는 것으로 보는 것이 적절해 보인다: 죽음으로 가는 포획(어업의 상식) → 생명 쪽으로 붙드는 포획(제자도의 방향). 이것이 바로 본문이 만들어 내는 역설이다. 이는 누가복음 19:10 같은 누가의 큰 주제('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와도 연결될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

4.4. "두려워하지 마라" 그리고 ζωγρέω

누가복음 5:10하반에서 예수의 말은 Μὴ φοβοῦ(두려워하지 마라)라는 짧은 명령으로 시작한다. 이 표현은 성경의 용례상, 어떤 정서적 위로의 관용구라기보다는 하나님의 결정적 개입이나 소명과 맞물려 등장하는 발화로써 자주 사용된다. 실제로 누가-행전에서도 이 표현은 반복적으로 나타나며(눅 1:13; 1:30; 행 18:9), 그때마다 이를 듣는 자의 삶의 방향이 새롭게 설정되는 전환점으로 기능하곤 한다. 이런 점을 고려하면, 여기서 "두려워하지 마라"를 단순히 "마음을 진정하라"는 위로의 말로 축소해 읽기는 어려워 보인다. 오히려 이는 "이제부터 너는 다른 방식으로 살아가게 될 것이다"라는 선언적 언명으로 보는 것이 적절해 보인다.

이 점은 공관복음 간의 비교에서도 더욱 분명해진다.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서는 동일한 장면에서 예수의 소명 발화가 "나를 따라오라"는 직접적인 명령으로 제시되지만(마 4:19; 막 1:17), 누가복음에서는 그 자리에 "두려워하지 마라"가 놓인다. 이는 누가복음이 제자 소명의 출발점을 단순한 추종의 요구가 아니라, 기존 자기 이해의 붕괴와 그에 따른 두려움의 문제로 설정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다시 말해, 누가복음에서 소명은 단지 두려움의 해소가 아니라, 두려움이 발생한 자리에 대한 재해석을 통해 시작된다고 말할 수 있다.

바로 이 지점에서 뒤이어 나오는 ζωγρέω가 상당히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 동사는 예수님의 제자가 '앞으로 하게 될 어떤 일 하나'를 지시하는, 단지 어떤 기능적 과업의 언급이라기보다, "이제 너는 이런 존재로 살아가게 될 것이다"라는, 제자의 정체성에 대한 재정의를 담은 문장으로 보인다. 예수의 말은 시몬이 경험한 실패, 지나치게 많은 물고기 포

28) I. H. Marshall, *The Gospel of Luke*, NIGTC (Grand Rapids: Eerdmans, 1978), 205. 여기서 마샬(I. H. Marshall)도 ζωγρέω를 "산 채로 취하다"(take alive)라고 적절히 번역한다.

획, 그리고 "나는 죄인입니다"라는 자기 인식 전체를 새로운 의미망 속에 다시 배치하면서, 이를 앞으로 있게 될 삶의 급진적 방향 전환과 연결한다.

복(D. L. Bock) 역시 이 대목을 해설하면서, 제자도의 핵심을 단순한 직무 변화가 아니라 예수의 사명에 참여하여 사람들을 하나님의 통치가 작동하는 영역 안으로 이끄는 소명으로 설명한다.[29] 이러한 해석은 ζωγρέω가 제자들이 그저 앞으로 '무엇을 하게 될 것인가'의 문제가 아니라, 정체성의 측면, 즉 제자는 과연 '어떤 존재가 될 것인가'의 문제와 직결되어 있음을 보여 준다. 따라서 누가복음 5:10에서 Μὴ φοβοῦ와 ἔσῃ ζωγρῶν은 단지 위로하고 일을 맡기는 차원의 이질적인 두 가지 요소가 아니라, 하나의 연속된 발화 안에서 제자의 정체성을 새롭게 정의해 가는 예수의 작업으로 이해 가능하다.

4.5. 누가-행전의 거시적 서술과 붙드는 '힘'의 방향

좀 더 넓은 문맥에서 보면, 누가-행전은 반복해서 "말씀"이 사람들에게 그저 전달되는 게 아니라, 사람들을 붙들고, 공동체를 움직이고, 역사를 앞으로 거세게 밀고 가는 장면을 자주 그리고 있음을 보게 된다. 다음의 구절이 대표적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자라 갔고(확장되었고), 예루살렘에서 제자의 수가 크게 늘어났다"(행 6:7);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능력으로 자라 가며(강력히 확장되며), 힘을 떨쳤다"(행 19:20). 여기서 말씀은 단지 정보가 아니라 일종의 힘이다. 즉, 말씀을 다만 정보의 매개가 아니라, 사건을 생성하는 주체로 이해하는 방향성이 이 사도행전의 흐름에서 드러나고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말씀은 그저 '전해지는 것'이라기보다 스스로 '작동하는 것'에 가깝다. 말씀이 선포되고 수용되는 자리에서 사람들의 삶의 방향과 공동체의 궤도가 재편되고, 그 결과로서 새로운 역사적 국면과 차원이 열리기 때문이다. 여기서 누가는 이를 어떤 물리적인 강제력으로 묘사하지 않지만, 그의 서술은 말씀이 사건을 만들어가고 이루어간다는 모종의 인식을 품고 있다고 말할 수 있다.

이 관점에서 보면, 누가복음 5:10은 한 제자의 소명 장면에 머무르지 않고, 누가-행전 전체의 전개를 예고하는 프로그램적(programmatic) 선언으로 읽힐 수 있다. 이 지점에서 우리는 지금까지 유보해 두었던 질문, '자료의 반영인가, 아니면 서술자의 의도인가'라는 질문을 다시 제기하게 된다. 적어도 이 본문에 나타난 특이한 표현(ζωγρέω)은, 누가-행전의 구성자인 누가가 의도적으로 배치한 서술 장치로 이해할 가능성을 열어 준다고 본다. 여

29) D. L. Bock, *Luke 1:1-9:50*, BECNT (Grand Rapids: Baker, 1994), 460-461.

기서 제자들은 단지 가르침을 전달하는 존재가 아니라, 말씀이 작동하는 흐름 속에서 사람들을 생명과 하나님 나라의 방향으로 붙드는 매개가 된다. 곧, 누가-행전의 큰 흐름에 비추어 볼 때, 누가복음 5:10의 ζωγρέω는 사도행전에서 말씀이 공동체와 역사를 움직이는 힘으로 전개될 것을 압축적으로 제시하는 표현으로 이해될 가능성이 있다.

4.6. 번역의 문제로 돌아가서: '낚다'의 장점과 그 한계

여기까지 누가복음 5:1-11의 내러티브 흐름을 따라온 뒤, 이제 ζωγρέω의 번역 문제로 다시 돌아가 보자. 만약 이 동사를 '낚다'로 옮긴다면, 앞선 어업 장면과의 이미지적 연속성은 분명하게 살아난다. 독자는 제자 소명을 기존 어부의 경험과 자연스럽게 연결 지어 이해할 수 있고, 본문의 은유 구조 역시 비교적 쉽게 파악할 수 있다. 그러나 바로 그 지점에서 문제가 발생한다. '낚다'라는 번역은 어업의 이미지를 또렷하게 보존하는 대신, 본문이 만들어 내는 핵심적인 의미 전환 — 곧 죽음에서 생명으로, 지배와 포획의 논리에서 구원의 방향으로의 전환 — 을 평면화할 위험을 안고 있다. 게다가 현대 한국어에서 '낚는다'는 표현이 사람에게 적용될 때, 부정적 뉘앙스를 동반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러한 우리 언어 사용의 잔향이 본문 해석에 의도치 않게 스며들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30] 이와 비교할 때, '붙잡아 살리다'와 같은 표현은 한국어 사용자에게 다소 낯설게 들릴 수 있다. 그러나 이 표현은 최소한 세 가지 의미 요소 — 포획(붙잡음), 생존(살려 둠), 그리고 방향성(결국 어디로 가는가) — 를 동시에 붙들어 두려는 시도로 기능한다. 물론 이 역시 번역에 있어 최종적 해답이라고 단정하긴 어렵다. 다만 지금까지 살핀 누가-행전 내러티브의 흐름을 고려할 때, ζωγρέω를 단지 '낚다' 혹은 '취하다'로 보는 번역은 본문이 지닌 흐름과 그 속에서의 의미 방향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 이런 점에서 최근 『새한글』이 제안한 '잡아 올린다'라는 번역은, 문제의식 차원에서는 주목할 만한 시도로 평가할 수 있을 것이지만, 여전히 한계가 있어 보인다.

4.7. 소결론

앞선 논의를 종합해 보면, 누가복음 5:10에서 ζωγρέω는 단순한 비유적 표

30) 실제로 현대 우리 말에서 '낚였다'라는 말은 '속았다', '잘못 걸려들었다' 등의 의미로 부정적으로 사용되곤 한다.

현이나 은유가 아니라, 이야기 전체를 '기적 이야기'에서 '제자도 선언'으로 돌아서게 하는 기능을 수행하는 표현이라고 할 수 있다. 이 동사는 마치 경첩처럼, 앞선 어부들의 실패와 과잉된 물고기 포획, 그리고 죄인이라는 자기 인식을 뒤로한 채, 앞으로 예수의 제자 된 자들의 삶의 방향을 새롭게 여는 역할을 한다고 말할 수 있다.

중요한 점은, 이 전환의 방향이 단순한 직업 변경이나 역할 이동에 있지 않다는 것이다. 누가복음이 그려내는 전환은 죽음 쪽으로 흐르던 포획의 상식적인 방향성을 도리어 생명 쪽으로 이끄는 새 방향이요 새 물결이라 하겠다. 따라서 예수의 제자란 한 편으로는 사람을 '붙잡는' 존재이지만, 그 붙잡음은 사람을 상실케 하거나 지배하는 방식이 아니라, 오히려 '생명'으로 옮겨 놓는 역할을 하는 존재임이 드러난다. 또한 이 어휘는 사탄의 지배에서 하나님의 지배로, 그 붙잡힘의 방향성이 완전히 달라짐 역시 담고 있다. 이 점에서 ζωγρέω는 누가복음이 말하는 제자도의 핵심을 압축적으로 드러내는 동사라고 할 수 있다.

이제 다음 장인 결론부에서는, 본 논문에서 제시한 관찰과 논의를 종합하여 ζωγρέω의 한국어 번역에 적용할 수 있는 몇 가지 원칙 혹은 제안을 정리해 볼 것이다. 아울러 단일 번역어만으로 이러한 의미 전환을 충분히 전달하기 어렵다면, 주석이나 각주가 어떤 방식으로 해석적 보완 장치가 될 수 있는지도 함께 제안하고자 한다.

5. 종합 및 번역의 최종 제안

본고는 누가복음 5:10에 사용된 ζωγρέω의 번역 문제를 검토하기 위해, 크게 네 가지 경로를 따라 논의를 전개해 왔다. 곧 (1) 주요 번역본의 경향 분석, (2) 사전적 정의에 대한 검토, (3) 고대 그리스어 문헌과 성경 내 용례 분석, (4) 누가복음 5:1-11 및 누가-행전 전반의 내러티브 흐름에 대한 고찰이다. 이 네 갈래의 논의를 종합할 때, 최소한 한 가지 점이 비교적 분명히 드러난다. 누가복음의 ζωγρέω가 단순히 '잡다'나 '낚다'로 평면화하기에는 의미 결이 분명히 다른 동사라는 점이다.

기존 번역본의 추이를 보면, 영어와 한국어를 막론하고 이 동사는 대체로 '낚다' 혹은 '잡다/취하다' 계열로 번역되어 왔다. 이러한 선택은 분명 장점을 지닌다. 앞선 어업 장면과의 연결이 자연스럽고, 교회 언어로도 이미 익숙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바로 그 익숙함 때문에, 본문이 의도적으로 만

들어 내는 방향 전환 — 곧 죽음 쪽으로 흐르던 포획의 논리가 생명 쪽으로 뒤집히는 전환 — 이 번역 과정에서 충분히 표현되지 못할 가능성이 존재한다. 말하자면, 해당 번역에 습관적으로 익숙해질수록, 텍스트가 지닌 모종의 긴장이 약화되거나 배제될 수 있다.

사전을 통한 어휘 검토 역시 이러한 문제의식을 뒷받침한다. 주요 사전들은 ζωγρέω를 일관되게 '산 채로 붙잡다'로 설명하며, 고전 그리스어 문헌에서도 이 동사는 흔히 '죽이다' 계열의 동사들과 대비되면서, 붙잡음의 결과가 '삶'으로 이어지는, 꽤 분명한 구분점을 갖는 방향성 안에서 사용된다. 다시 말해, 이 동사는 '붙잡는다'는 행위 자체보다도, 붙잡힌 이후에 생명이 유지된다는 결과를 중요하게 표시하는 성격을 지닌다.

이러한 의미 경향은 칠십인역과 신약의 용례에서도 확인된다. 예를 들어, 여호수아 2:13에서 라합은 자신의 생명을 죽음에서 건져 달라는 구체적 요청 이전에 ζωγρέω 동사를 통해 가족을 "살려 두라"라고 요청하는데, 이를 통해 죽임과 명확히 구별되는 '생존'이라는 결과적 범주에 해당 단어가 놓임이 분명히 드러난다. 디모데후서 2:26에서는 사람들이 마귀에게 '산 채로 사로잡힌' 상태가 ζωγρέω 동사를 통해 묘사되는데, 이들은 육체의 생명은 붙어 있으나 타자(마귀)의 지배 아래 놓인 비참한 존재로 그려진다. 이러한 용례들은 ζωγρέω가 단순한 생존을 넘어, 붙잡힌 이후 지속되는 상태와 지배의 방향까지 함축하는 결과 중심적 동사임을 보여 준다. 이 점에서 ζωγρέω는 구원과 종속이라는 상반된 결과 모두를 품을 수 있는, 일종의 양가적 표현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의미 기반을 바탕으로 누가복음 5:1-11의 내러티브를 다시 읽을 때, ζωγρέω는 단순한 어업 뉘앙스의 표현을 넘어서는 기능을 수행하는 것으로 보인다. 누가복음의 구성자 누가는 여기서 어업 관련 어휘들을 충분히 배치한 뒤, 결정적인 순간에 다른 동사를 선택함으로써 이야기의 방향을 전환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물고기를 잡는 행위가 결국 죽음과 소비로 귀결되는 포획이라면, 제자들에게 맡겨진 '포획'은 그 반대 방향 — 곧 생명 쪽 — 으로 향하는 것으로 읽힐 여지가 있다. 이러한 전환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시는 누가복음의 구원론적 방향(눅 19:10)과도 긴밀하게 공명한다고 볼 수 있다.[31]

---

31) 본 논문은 누가복음에 나타난 ζωγρέω 동사 자체가 곧 '구원'을 의미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눅 5:1-11의 내러티브 구조 — 특히 두려움-소명 공식, 베드로의 죄인 고백, '이제부터'라는 정체성 전환 선언, 그리고 누가-행전 서사 전체의 프로그램적 구조 — 속에서 이 동사가 '생명을 향한 붙잡음'이라는 방향으로 해석될 가능성과, '구원'을 향한 함의를 가질 가능성을 제시하는 것이다.

이상의 논의를 종합할 때, 한국어 번역은 최소한 두 가지 기준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다. 첫째, 앞선 어업 장면과의 내러티브적 연속성을 쉽게 끊어 버리지 말 것; 둘째, 동시에 '포획의 결과가 생명'이라는 역설적 방향을 가능한 한 드러낼 것. 이 기준 아래에서 본 논문은 ζωγρέω의 의미를 가장 직접적으로 드러내는 번역으로서 '산 채로 붙잡는 자'를 제안한다. 다만 이 표현은 한국어 본문으로 사용하기에는 다소 직역적이므로, 각주나 주석 형태로 제시하는 것이 현실적일 것이다. 실제 본문 번역으로는 '붙잡아 살리는 자'라는 번역을 하나의 대안으로 제안하고자 한다.

물론 어떤 번역도 원어의 의미를 완전히 등가로 옮길 수는 없다. 그러나 번역은 적어도 본문이 지향하는 방향을 반영하고 붙들어야 한다. 만일 ζωγρέω가 실제로 '살려 두는 포획'이라는 의미 결을 포함한다면, 이를 단순히 '낚다'로 평준화하는 번역은 누가복음이 담고 있는 이 특징적인 어휘가 만들어 내는 신학적 긴장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

6. 나가는 말

이미 앞서 중요한 정리는 하였으니, 이제 논의를 마무리하며 본고의 연구가 지닌 요지와 함의를 간단히 생각하고자 한다. 사실 이 연구의 핵심은 ζωγρέω라는 단어 하나를 어떻게 번역할 것인가에만 있지 않다. 이는 누가복음이 그려내는 제자도를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라는 더 넓은 질문과 맞닿아 있다. 누가복음에서 제자는 사람을 '붙드는' 존재로 묘사되지만, 그 붙잡힘은 어떤 억압이나 소모, 혹은 죽음으로 이끄는 행위가 아니다. 오히려 붙잡히는 자를 생명의 영역으로 옮겨 놓는 사건으로 이해될 필요가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ζωγρέω는 누가복음이 이해하는 제자도의 본질을 매우 압축적으로 드러내는 동사라 할 수 있다. 제자는 사람을 붙들되, 그 붙잡음은 기존의 포획 논리를 반복하는 것이 아니라, 기존의 논리를 뒤집는 방식으로 살아간다. 죽음으로 향하던 흐름을 생명 쪽으로 전환시키는 이 역전의 지점에, 누가는 ζωγρέω라는 다소 낯선 동사를 다분히 의도적으로 배치했다고 볼 수 있다.[32] 이 동사가 사용되는 목적은 풀어보면, "예수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사람들을 예수께 이끌며 그들에게 참 생명과 자유를 누리게 하는 그 삶으로 이끄"시기 위함이라 말할 수 있다.[33]

---

32) 물론 누가가 이 특수 어휘를 전승 및 자료를 통해 받아 전하고 있을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다고 본다. 그 가능성에 대해서는 7번 각주를 참조하라.

33) 안호준, 『누가복음 관찰과 적용』 (대전: 한국침례신학대학교출판부, 2026), 168.

결론적으로 본 논문은 한국어 성서 번역이 우리에게 익숙하게 사용되어 온 전통적 흐름을 유지하는 데에 머물기보다, 누가복음이 ζωγρέω라는 독특한 어휘를 통해 만들어 내는 방향성과 역전성을 좀 더 분명히 드러내는 쪽으로 조정될 필요가 있음을 제안하며 글을 맺고자 한다.

<주제어>(Keywords)
누가복음 5:10, ζωγρέω, 번역, 포획 은유, 생명.
Luke 5:10, ζωγρέω, translation, capture metaphor, life.

(투고 일자: 2026년 1월 31일, 심사 일자: 2026년 2월 27일, 게재 확정 일자: 2026년 4월 8일)

<참고문헌>(References)

Rahlfs, A. and Hanhart, R., eds., *Septuaginta: Id est Vetus Testamentum Graece iuxta LXX interpretes*, 2nd ed, Stuttgart: Deutsche Bibelgesellschaft, 2006.

강대훈,『누가복음』, 서울: 홍성사, 2022.

김두석, "로마서 14:1–2와 15:1의 '믿음이 약한 자'와 '믿음이 강한 자' 번역에 대한 고찰",「성경원문연구」54 (2024), 148–171.

김득중,『성서주석: 누가복음』, 대한기독교서회 창립 100주년 기념 성서주석,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1993.

슈라이너, T. R.,『누가복음』, 홍병룡 역, ESV 성경 해설 주석, 서울: 국제제자훈련원, 2023.

안호준, "공관복음서 '저자'의 '의도' 표현의 적실성 탐구",「신약논단」31:1 (2024), 1-34.

안호준,『누가복음 관찰과 적용』, 대전: 한국침례신학대학교출판부, 2026.

정훈택,『완벽한 비교를 위해 새로 번역한 병행 사복음서』, 서울: 민영사, 2013.

Ahn, H. J., *Finding the Synoptic Gospels' Construction Process: A Comparative-Linguistic Analysis of the Eucharist and Its Co-texts*, LBS 26, Leiden: Brill, 2024.

Barr, J., *The Semantics of Biblical Language*,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1961.

Black, M., *Models and Metaphors: Studies in Language and Philosophy*, Ithaca: Cornell University Press, 2019.

Bock, D. L., *Luke 1:1-9:50*, BECNT, Grand Rapids: Baker, 1994.

Bovon, F., *Luke 1: A Commentary on the Gospel of Luke 1:1-9:50*, Hermeneia, Minneapolis: Fortress, 2002.

Chung, W., *Translation Theory and the Old Testament in Matthew: The Possibilities of Skopos Theory*, LBS 15, Leiden: Brill, 2017.

Fitzmyer, J. A., *The Gospel According to Luke I-IX*, AB 28, New York: Doubleday & Company, 1979.

France, R. T., *Luke*, TTC, Grand Rapids: Baker, 2013.

Gibbs, Jr., R. W., *The Poetics of Mind: Figurative Thought, Language, and Understanding*,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94.

Green, J. B., *The Gospel of Luke*, NICNT, Grand Rapids: Eerdmans, 1997.

Homer, *Iliad.*

Jung, C.-W., *The Original Language of the Lukan Infancy Narrative*, JSNTSup 267, London: T&T Clark, 2004.

Kövecses, Z., *Metaphor: A Practical Introduction*, 2nd ed.,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2010.

Lakoff, G. and Johnson, M., *Metaphors We Live By*,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Press, 1980.

Liddell, H. G., et al., *A Greek-English Lexicon*, 7th ed., New York: Harper, 1883.

Marshall, I. H., *The Gospel of Luke: A Commentary on the Greek Text*, NIGTC, Grand Rapids: Eerdmans, 1978.

Nida, E. A. and Taber, C. R., *The Theory and Practice of Translation*, Leiden: Brill, 1969.

Polybius, *Histories.*

Porter, S. E., *The Pastoral Epistles: A Commentary on the Greek Text*, Grand Rapids: Baker Academic, 2023.

Porter, S. E., "θαυμάζω in Mark 6:6 and Luke 11:38: A Note on Monosemy", *Biblical Ancient Greek Linguistics* 2 (2013), 75-79.

Ricoeur, P., *The Rule of Metaphor: Multi-disciplinary Studies of the Creation of Meaning in Language*, R. Czerny, et al., trans., Toronto: University of Toronto Press, 1975.

Ringe, S. H., *Luke*, WBC, Louisville: Westminster John Knox, 1995.

Ritchie, L. D., *Metaphor*,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13.

Silva, M., *Biblical Words and Their Meaning: An Introduction to Lexical Semantics*, Rev. ed., Grand Rapids: Zondervan, 1994.

Soskice, J. M., *Metaphor and Religious Language*, Oxford: Clarendon, 1985.

Tannehill, R. C., *Luke*, ATC, Nashville: Abingdon, 1996.

Thayer, J. H., *A Greek-English Lexicon of the New Testament*, 4th ed., Milford: Mott Media, 1977.

Thucydides, *Historiae.*

Towner, P. H., *The Letters to Timothy and Titus*, NICNT, Grand Rapids: Eerdmans, 2006.

de Vries, L., "Translations of the Bible and Communities of Believers: A Historical and Functional Perspective on Translating the Bible",「성경원문연구」23 (2008), 172-195.

<Abstract>

Reconsidering the Translation of ζωγρέω in Luke 5:10: From the Metaphor of Capture to the Direction of Life

Hojoon J. Ahn
(Korea Baptist Theological University)

This article reconsiders the verb ζωγρέω in Luke 5:10 through a comprehensive examination of its translation history, lexical evidence, Greek literary usage, and narrative function within the third Gospel. Most English and Korean translations render the expression as: “to catch/fish for people,” a choice that preserves the surface-level fishing metaphor but risks flattening the verb’s semantic force and obscuring its distinctive nuance.

Across Greek literature, ζωγρέω does not simply denote the act of capturing; rather, it more specifically refers to taking an enemy alive — that is, refraining from immediate killing while placing the captured individual under the captor’s subsequent authority and control. This result-oriented sense is attested in the Homeric war narratives, where a clear distinction is maintained between “killing” and “taking alive,” and similarly in Thucydides, who also contrasts those slain with those captured alive. A similar semantic nuance appears in the Septuagint (e.g., Num 31:18, Jos 2:13) and in the New Testament (2Ti 2:26), where ζωγρέω consistently implies both survival and the ensuing condition of those captured.

When read within the narrative framework of Luke 5:1–11, the use of ζωγρέω signals a subtle yet decisive shift in meaning. While the third Gospel retains the imagery of fishing established in the preceding scene, it simultaneously redirects its telos. The capture of fish ordinarily culminates in death; by contrast, the disciples’ newly assigned form of “capture” is oriented toward life. In this sense, ζωγρέω may be understood as a programmatic expression within the Lucan narrative, reframing the concept of discipleship not as an extension of domination, loss, or destruction, but as participation in a life-giving movement aligned with God’s salvific purpose.

Furthermore, this lexical choice may reflect either the preservation of a distinct strand within the Synoptic tradition or a deliberate narrative decision by Luke to

articulate the transformative nature of the disciples' mission. In either case, the verb introduces a meaningful semantic tension that is often obscured in translation traditions shaped by the parallel expressions found in Matthew and Mark.

Accordingly, translation should aim not only at lexical correspondence but also at preserving the narrative and theological direction embedded in the verb. Renderings such as "you will capture people alive" or "you will capture people for life" better reflect this dynamic than the conventional "catch/fish for people." The translation of ζωγρέω, therefore, is not merely a lexical decision but a hermeneutical one, shaping how discipleship and mission, and the life-giving character of the gospel are understood within the Gospel according to Luke.